

융복합 다문화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창금*, 박연숙*, 이해경*, 이금재**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The Effect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Grace Chang-keum Lee*, Yeon-Suk Park*, Hye-Kyung Lee*, Keum-Jae Lee**

Dep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실험군은 J시 소재 간호학과 3학년 45명, 대조군은 K시 소재 간호학과 3학년 40명, 총 85명이며,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자료분석은 SPSS 21.0/PC를 이용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동질성 확인은 χ^2 test와 t-test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차이는 paired t-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적 역량은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3.07에서 중재 후 3.69로 유의하게($p < .000$) 증가했고, 대조군은 중재 전 3.16에서 중재 후 3.23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p < .000$)가 있었다. 공감능력은 실험군은 중재 전 3.14에서 중재 후 3.50로 유의하게($p < .000$)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중재전 3.10에서 중재후 3.18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군간 유의한 차이($p < .000$)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성찰일지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on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Method: This used a total of 85 samples with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and pre-and post-testing. The samples comprised of 85 third-year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the BSN program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45$) from college J and an control group ($n=40$) from college K. Results: The experimental group of students who attended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increased the level of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significantly. But the control group of students who did not receiv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had no significant increase. Conclusion: The study proves that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cultural competence and empathy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cultural competence, empathy, reflective journal

Received 15 October 2015, Revised 17 November 2015
Accepted 20 Dec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Yeon-Suk, Park
(Professor, Dep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yspark@kongj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2015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55% (747,467명)에서 2014년에 3.57%(1,797,618명)로 크게 증가하였다[1]. 이는 한국사회가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다문화 대상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보건의료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간호사들의 문화적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각종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다문화 대상자들에게 간호사들이 효과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간호사는 다문화 대상자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각문화권의 독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간호사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2]. 이에 미래의 간호사들인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내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교육계는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행문화간호이론을 창시한 Leininger(1997)는 간호 돌봄에 있어서 문화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 즉 간호사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에 적절한 간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들은 다문화 대상자들과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의 감정과 요구를 잘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공감 능력은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Min과 Lee(2009)의 연구에 의하면, 문화적

이해나 체험이 효과적인 문화적 역량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의 증진이 필요하다[4]. 이는 타인의 눈과 귀로 세상을 보고 듣는 것을 뜻하며, 타문화권 사람들 내부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5].

이민자들로 출발한 미국의 경우, 1986년에 미국간호사협회(American Nurses Association)가 다문화적인 미국 사회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적 역량을 간호교과과정 안에 포함시키도록 지침을 발표하였다[6]. 이에 따라 미국간호대학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는 간호대학 학사과정 커리큘럼에 문화적 역량을 필수적인 항목으로 포함시켰다[7].

한국의 경우, 대학에서 다문화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문화적 인식과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에 장차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소수이다. 2015년 8월 현재 국내에서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은 두 편뿐이다. Peek과 Park(2013)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8]. 다음으로, Choi 등(2014)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내 다문화간호 관련 과목들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여 한국에 맞는 문화간호 역량강화 교육모델을 제안했다[9].

21세기 융복합시대에 접어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간호 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생들을 배출해내기 위해 효과적인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Lee, Jung과 Son(2015)의 연구는 간호학 뿐 아니라 의학, 과학, 윤리학, 종교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융복합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10]. 융복합교육이란 다양한 교과와 전공을 서로 관련시켜 새로운 지식생산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11]. 간호교육 역시 융복합시대의 이런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하려는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간호교육의 영역에 제한적이나마 사회학 쪽의 다문화 논의와 인문학 쪽의 성찰일지 및 다문화 관련 문화콘텐츠를 서로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증진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둘째, 성찰일지를 통해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의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들은 총 85명이며, 이들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실험군은 J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3학년생 45명, 대조군은 K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3학년생 40명으로 하였다.

G* Power 3.1을 사용하여 대상자 수를 선정하였다. 효과는 0.3,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샘플 수는 82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45명, 대조군 40명이 참여하였으며, 연구종료까지 한 명도 탈락자가 없었다.

2.3 연구도구

2.3.1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도구는 Suh(2004)의 도구[12] 기반으로 하여 Han(2014)이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하였다[13]. 본 연구자는 Han이 개발한 도구를 4가지 하부 영역으로 정했고, 각항목들은 문화적 인식 9문항, 문화적 지식 13문항, 문화적 민감성 10문항, 문화적 기술 10문항,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들은 리커트 5점 척도 형식으로, 1번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번 ‘매우 그렇다’로 구

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의 도구 개발 당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4이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 역량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2이었다.

2.3.2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인이다[14]. Davis(1996)는 공감능력의 측정을 위해 Interpersonal Reaction Index(IRC)를 개발했다[15]. 본 연구에서는 Jeon(2002)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다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16], 설문지는 총 2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문항은 6개 문항으로 모두 역환산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형식으로,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α = .801로 나타났다.

2.3.3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의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했다.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 국내 간호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간호 관련 강의 계획서를 분석하여 한국형 다문화간호교육모델을 제시한 Choi 등의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9].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간호학 교수 2명과 다문화 교육전문가 2명에게 검토를 의뢰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Table 1>.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은 강의, 그룹토의 및 성찰일지(Reflective Journal) 쓰기, 다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동영상 시청 등으로 구성되었고, 도입, 전개, 결론의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1회당 100분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강의는 제1주에서 제5주까지는 문화와 다문화에 관한 기본 이론,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개관 및 외국 다문화 사회의 이해, 제6주에서 제10주까지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건강적 관점에서의 이해, 제11주에서 제15주까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사회의 건강문제를 다루고 그동안 수업한 것에 대한 소감나누기로 이루어졌다.

둘째, 다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동영상 시청은 제1주에

〈Table 1〉 Outline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Level	Educational Contents	Convergent Teaching & Learning Activities
1 Introduction -Awareness -Knowledge	-Basic theories of culture and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conflict -Multicultural phenomena in Korea -Multicultural societies in other countries	-Lecture & group discussion -"Sebashi: Tell us you are the same person as me" -A video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wareness: "Open and Smile"(1) -The song "Black happiness" by a multicultural singer Yun Mi-Rae -Reflectional journal: My own understanding, prejudice, and stereotype on multiculturalism
2 Development -Sensitivity -Empathy	-Laws and systems in relation to multiculturalism -History and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from a perspective of health -Need for multicultural nursing	-Lecture & group discussion -The movie "Banga Banga" directed by Sang-Hyo Yuk -A video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wareness: "Open and Smile"(2) -The song "Goose's dream" by a multicultural singer Insooni -Reflection journal: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n government and necessity of multicultural nursing
3 Conclusion -Skill -Empathy	-Health issues in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Case studies on urba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and pregnant women an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Culturally competent health assessment and nursing intervention	-Lecture & group discussion -SBS Special #238 "Your Republic of Korea 2: A portrait of teenagers" -A video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wareness: "Open and Smile"(3) -The song "Tears flow" by a multicultural singer Sonya -Reflection journal: Providing multicultural clients with health assessment and cultural nursing

서 제5주까지는 “세바시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 주세요”, 다문화인식제고영상 “얼어요 그리고 웃어요”(1), 다문화 가수 윤미래의 “검은 행복” 감상 및 토론, 6주에서 10주까지는 영화 “방가 방가”, 다문화인식제고영상 “얼어요 그리고 웃어요”(2), 다문화 가수 인순이의 “거위의 꿈” 감상 및 토론, 11주에서 15주까지는 -“SBS 스페셜 당신들의 대한민국 2-10대의 초상”, 다문화인식제고영상 “얼어요 그리고 웃어요”(3), 다문화 가수 소나의 “눈물이 나” 감상 및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성찰일지란 학습자의 성찰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용한 학습도구이다. 학습자들은 성찰일지를 통해 자신의 말, 행동, 신념을 글로써 서술하게 되며, 그러므로 학습과제를 이해해 나가는 사고과정과 내면의 상태를 표현한다[17]. 성찰일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성찰적 활동과 사고를 객관화하고 의식화하여, 자아성찰, 분석, 반성의 기회를 체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학습내용, 과정, 교육자에 대한 생각, 느낌, 경험 등을 표출하게 만든다[18]. 그러므로 성찰일지는 성찰적 사고와 활동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구현한 학습 전략이자 평가도구이며 교육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19]. 결론적으로, 성찰일지 쓰기는 학습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학습전략들의 효과에 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20]. 본 연구에서는 총 3회에 걸쳐 성찰일지를 쓰게 하였다.

2.3.4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먼저 학생들에게 동의서 작성과 설문지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후 학생들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서면으로 동의한 85명 모두 사후 조사까지 탈락하지 않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첫째 주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문화적 역량 및 공감능력에 대해 사전 조사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설문지를 통해 사후 조사를 하였고,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중재를 받은 실험군(J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조군(K대학)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의 변화에 대해서로 비교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1.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t-test, 명목변수는 Chi-square, 5이하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Independent t-test와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45) n(%)	Cont.(n=40) n(%)	X ²	p
Age(year)	20~22	43(95.5)	39(97.5)	3.65	.462
	23~25	2(4.5)	1(2.5)		
Gender	Male	3(6.7)	1(2.6)	0.83	.659
	Female	42(93.3)	38(97.4)		
Religion	Christianity	9(20.0)	8(20.6)	5.72	.678
	Catholic	6(13.3)	6(15.4)		
	Buddhism	4(8.9)	3(7.7)		
	No Religion	25(55.6)	21(53.8)		
	Others	1(2.2)	1(2.6)		
Experience of visiting overseas	Yes	20(44.4)	18(46.2)	0.84	.656
	No	25(55.6)	21(53.8)		
Experience of living overseas	Yes	6(13.3)	4(10.3)	0.32	.850
	No	39(86.7)	35(89.7)		
Experience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Yes	41(9.1)	32(82.1)	1.67	.433
	No	4(8.9)	7(17.9)		
Fluency in speaking foreign languages	Fluent	10(22.2)	12(30.8)	1.22	.873
	Intermediate	34(75.6)	26(66.7)		
	Beginner	1(2.2)	1(2.6)		
Encountering patients from other cultures	Frequently	35(77.8)	31(79.5)	1.15	.885
	Sometimes	9(20.0)	8(20.5)		
	Never	1(2.2)	0(0.0)		
Foreign friends	Yes	13(28.9)	8(20.5)	1.12	.571
	No	32(71.1)	31(79.5)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classes	Yes	4(8.9)	7(17.9)	1.67	.433
	No	41(91.1)	32(82.1)		
Experience of attending multicultural events	Yes	9(20.0)	10(25.6)	3.37	.761
	No	36(80.0)	30(74.4)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들의 동질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재 전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은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2, 3>.

3.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실험군의 경우 중재 전 3.07에서 중재 후 3.69로 증가했고(p<.000), 대조군은 중재 전 3.16에서 중재 후 3.23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Table 4>.

3.3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실험군은 중재 전 3.14에서 중재 후 3.50(p<.000)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3.10에서 중재 후 3.18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Table 4>.

3.4 성찰일지

실험군에 참여한 학생들은 5주마다 3회에 걸쳐 제시된 주제에 따라 성찰일지를 기록하여 제출하였다. 각 주

<Table 3> Baseline Outcome Measur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Variables	Exp.(n=45) M±SD	Cont.(n=40) M±SD	t	p
Cultural Competence	3.07±0.36	3.16±0.21	1.29	.200
Cultural Awareness	3.91±0.34	3.88±0.34	0.40	.689
Cultural Knowledge	2.47±0.35	2.57±0.29	1.43	.156
Cultural Sensitivity	3.39±0.45	3.45±0.37	0.67	.503
Cultural Skill	2.53±0.89	2.74±0.41	1.35	.180
Empathy	3.14±0.25	3.10±0.28	0.67	.505

(Table 4) The Effect of a Convergence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Program

Variables	Groups	Pre-test M±SD	Post-test M±SD	t ^w	p	Difference M±SD	t□	p
Cultural Competence	Exp.	3.07±0.36	3.69±0.36	11.82	.000	.61±.34	6.85	.000
	Cont.	3.16±0.21	3.23±0.24	1.44	.157	.06±.29		
Cultural Awareness	Exp.	3.91±0.34	4.35±0.37	8.45	.000	.43±.34	4.97	.000
	Cont.	3.88±0.34	3.95±0.35	-1.10	.275	.07±.42		
Cultural Knowledge	Exp.	2.47±0.35	3.09±0.42	10.37	.000	.62±.40	5.13	.000
	Cont.	2.57±0.29	2.59±0.46	-0.29	.770	.02±.49		
Cultural Sensitivity	Exp.	3.39±0.45	3.95±0.45	7.80	.000	.56±.48	5.13	.000
	Cont.	3.45±0.37	3.53±0.29	-1.01	.316	.08±.49		
Cultural Skill	Exp.	2.53±0.89	3.36±0.52	7.24	.000	.82±.76	1.81	.000
	Cont.	2.74±0.41	2.83±0.40	-1.29	.202	.09±.43		
Empathy	Exp.	3.14±0.25	3.50±0.32	9.73	.000	.35±.24	0.65	.000
	Cont.	3.10±0.28	3.18±0.25	-1.65	.106	.08±.30		

제는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한 내용과 다문화 관련 문화 콘텐츠 동영상 시청 및 그룹 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성찰 주제는 1회 한국의 다문화 현상, 2회 한국의 다문화 정책, 3회 다문화 사회의 건강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학생들이 기록한 성찰일지는 Kang과 Jung(2009)이 연구해서 보고한 형식에 의거하여 본 연구자가 분석하였다[18].

성찰일지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한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해 학생들은 외국인들에 관한 경험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학생들 대부분 외국인들을 자기와는 전혀 다른 존재나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였고, 외국인과의 접촉을 피할 정도로 문화적인 편견과 무지를 드러냈다. 학생들은 외국인들에 대해 “불편하다, 무관심하다, 무섭다, 외국인을 피하기 위해 전철을 갈아탔다” 등으로 표현했다. 이는 대중매체에 비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한 영향 때문으로 파악되며,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전 학생들이 가진 일반적인 문화적 인식의 정도를 잘 보여주었다.

둘째,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민감성이 향상되었으며, 문화적 지식이 쌓여갔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이 처한 현실과 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살면서 당하는 각종 차별 사례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타, 욕, 임금착취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중반부에 시청한 영화 “방가 방가”에 관한 성찰일지에서 학생들은 외국인 노동

자들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베트남에서 온 우리 외숙모도 공장에서 저런 대우를 받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고 썼다.

셋째, 프로그램이 중반이후로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새롭게 습득된 문화적 지식으로 타문화들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간호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몸이 아파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이 “마음이 아팠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정간호가 필요하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감능력의 경우, “얼굴색과 언어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며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주었고, 외국인 자녀들의 정체성문제와 교육문제에도 적극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문화적 기술 영역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즉 “동네 병원에 외국인 이주자들을 위한 다국어 책자 비치, 다문화간호 모임의 결성, 외국인 여성노동자 성추행 방지교육,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연령별 상담프로그램, 인터넷 홍보를 통한 다문화 가정 인권 교육” 등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4. 논의

다양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대상자들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또한 문화적 역량의 효과적 매개체인 공감능력 역시 문화간호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이것은 미국 간호대학에서 교육 과정에 다문화의 요소를 포함시켜 교육시킬 때 비로소 간호사들의 문화적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는 Leonard(2006)의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21]. Nobel 등(2014)은 Campinha-Bacote가 개발한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의 학생용 버전인 Inventory for Assessing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Student Version (IAPCC-SV ©)을 이스라엘 간호대학 세 곳에서 선정된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연구하였다[22]. 그 결과 다문화교육 중재가 이루어진 집단에서 문화적 역량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이 역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받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아지므로, 다문화 교육적 중재가 한국 간호대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Seo와 Kwon(2014)의 연구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23].

특히 전통적인 간호학 과목의 영역에 사회학 쪽의 다문화 논의, 인문학 쪽의 성찰일지 작성 및 토론, 다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동영상을 결합한 융복합교육이 효과적이었다는 본 연구는 입증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다문화교육의 이슈들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탐구하여 스스로 다문화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교수학습 방안의 기초로서 융복합교육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Hong과 Lim(2014)의 연구 역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의사소통 방식 개발을 위해 융복합적 수업방식이 다문화교육을 위해 매우 적절하다고 주장한다[24].

본 연구에서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은 실험군이 3.07, 대조군이 3.16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 조사된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 평균수치인 2.7이나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평균수치인 2.57보다 높게 나타났다[25].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연령대가 실험군은 20-22세가 95.5%, 대조군은 97.5%를 차지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연령대가 낮은 대학생의 특성상 타문화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26]. 또 다른 이유는 두 대학이 지방 소도시에 위치해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빈번하게 왕래하는 대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군의 77.8%와 대조군의 79.5%가 타문화권에서 온 환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대답했고, 실험군의 44.4%와 대조군의 46.2%가 해외방문을 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Yang, Lim과 Lee(2013)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다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을수록 문화적 역량 지수가 높으며 문화적 역량을 심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27].

한편, 문화적 역량의 하부 항목 중에서 문화적 기술이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냈다. 즉 실험군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2.53이었는데 다문화교육 중재 후 실시한 사후조사에서는 3.36으로 나타남으로써 0.83이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적 인식 0.44, 문화적 지식 0.62, 문화적 민감성 0.56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수치이다.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기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이유는 대상 학생들이 3학년으로서 이미 다문화적 경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Noble 등이 이스라엘 간호대학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적 인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 문화적 기술과 같은 실제적인 부분은 졸업 후 간호사에서 현장에서 일해 나갈 때 증진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22].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Nobel 등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체험을 병행할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더 높아지며,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이론과 실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Seo(2014)의 연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28].

공감능력의 경우 다소 변화를 보였지만, 문화적 역량만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3.14였고, 다문화 교육 중재 후 실시한 사후조사에서는 3.5로써 차이는 0.36이었다. 이는 문화적 지식이나 체험이 문화적 역량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공감능력이 매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하지만 15주의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공감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없다는 점도 보여준다. 특히 참여자들이 아직 학생으로서 직접적인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Gudynkunst와 Kim(1997)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능력

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개발되는데[29], 이런 측면이 본 교육 프로그램에는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경험, 예를 들어 동영상 보는 것만으로 타인에 공감하는 감정이 일어났음을 Peek과 Park의 연구에서 입증하였다[8]. 본 연구에서도 간접적인 체험을 시도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고 성찰일지를 쓰게 한 결과 학생들의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이 어떻게 향상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중재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학과의 정규 과목 중 하나로 발전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간호학 전 분야에 걸쳐 문화적 역량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문화적 역량 개념을 교과 커리큘럼 전반에 핵심 요소로 포함시켰다. 한국처럼 특정 교과목을 개설하기보다는 각 과목들에서 문화적 역량 개념을 어떻게 반영하여 가르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간호사정(Health Assessment) 과목을 예로 들면,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대상자들을 어떻게 사정할 것인가에 관해 문화적 역량 개념을 직접 적용해 공부하고 실습을 한다[30]. 또 같은 노인문제라 하더라도 미국의 주류 백인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이민을 와서 여생을 보낸 노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이른바 ‘인종학적 노인학’ (ethnogeriatrics)이란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노인환자들의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진료와 돌봄을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31].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간호교육 관련 교과목을 보다 한국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개발해야 할뿐 아니라, 간호학 전 분야에서 문화적 역량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여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 향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융복합 다문화간호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강의실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문화센터에 직접 봉사하는 것을 커리큘럼에 반영한다면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대상자들의 건강을 위해 다문화간호교육 프로그램이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고, 더 나아가 간호학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Justice, News Report, Retrieved July 29, 2015 from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 [2] W. O. Oh,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Vol. 17, No. 4, pp. 222-229, 2011.
- [3] M.M. Leininger, Future Directions in Transcultural Nursing in the 21 Century,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 44, No. 1, pp. 19-23, 1997.
- [4] S. H. Min, M. Y. Lee, A Exploratory Study about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focused on the Cultural Aware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1, No. 1, pp. 183-206, 2009.
- [5] A. E. Ivey, M. B. Ivey, L. Simek-Morgan, eds.,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A Multicultural Perspective* (3rd ed.), pp.21-44, SAGE Publications, Los Angeles, 1993.
- [6] American Nurses Association, *Cultural Diversity in the Nursing Curriculum: A guide for Implementation*. Kansas City, MO, 1986.
- [7]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Cultural Competency in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Washington, DC, 2008.
- [8] E. H. Peek, C. S. Park, Effects of a Multicultural

- Education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3, No. 5, pp. 690-696, 2013.
- [9] K. S. Choi, S. Morgan, V. Thongpriwan, S. Y. Lee, M. H. Jun, A Proposed Teaching Model to Improve Cultural Competency Care for Undergraduate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3, pp. 424-434, 2014.
- [10] Y. M. Lee, K. A. Jung, M. A. Son, Attitudes towards Death and Euthanasia among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6, pp. 213-223, 2015.
- [11] J. H. Park, J. H. Lee, A Systematic Review of the Studies of Integrative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4, No. 1, pp. 97-135, 2013.
- [12] E. E. Suh, The Model of Cultural Competence through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5, No. 2, pp. 93-102, 2004.
- [13] S. Y. Han,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for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2014.
- [14] J. A. McCoy, Is Empathy a Fundamental Substrate for Cultural Competency?. The 92nd Clinical Congress, Atlanta, Oct. 2006.
- [15] M. H. Davis,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Westview Press, Boulder, CO, 1996.
- [16] B. 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002.
- [17] L. Beveridge, Teaching Your Students to Think Reflectively: The Case of Reflective Journal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Vol. 2, No.1, pp. 33-43, 2009.
- [18] I. A. Kang, E. S. Jung, The Reexamination of Educational Implication of Reflective Journal: A University Class Cas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1, No. 2, pp. 93-117, 2009.
- [19] Y. T. Lee, C. I. Lim,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gram Outcomes Assessment System Using Reflection Journal.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6, No. 3, pp. 42-50, 2013.
- [20] R. M. Williams, J. Wessel, Reflective Journal Writing to Obtain Student Feedback About their Learning During the Study of Chronic Musculoskeletal Conditions. *Journal of Allied Health*, Vol. 33, No. 1, pp. 17-23, 2004.
- [21] T. Leonard, Exploring diversity in nursing education: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Vol 13, No. 2, pp. 87-96, 2006.
- [22] A. Noble, E. Nuszen, M. Rom, L. M. Noble, The Effect of a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al Intervention for First-Year Nursing Students in Israel.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25, No. 11, pp. 87-94, 2014.
- [23] Y. S. Seo, Y. C. Kwon,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 415-423, 2014.
- [24] S. A. Kim, J. Y. Hong, G. Y. Lim, Study on Convergence Education for Cri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Curriculum of Art, Korean Language, and Music,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Vol. 28, No. 3, pp. 107-206, 2014.
- [25] D. H. Chae, Y. H. Park, K. H. Kang, T. H. Le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1, pp. 76-86, 2012.
- [26] E. J. Lee, Y. K. Kim, H. K. Lee, A Study on Cultural Competenc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 178-188, 2012.
- [27] S. Y. Yang, H. N. Lim, J. H. Lee,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183-193, 2013.

- [28] J. B. Seo,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Secondary Teacher's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2, No. 4, pp. 191-203, 2014.
- [29] W. B. Gudykunst, Y. Y. Kim, Communicating with strangers: An approach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nd ed.). McGraw-Hill, New York, 1997.
- [30] G. C. Le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Education. Master's thesis, MidAmerica Nazarene University, Olathe, KS, 2014.
- [31] L. S. Bickley, P. G. Szilagyi, Bates' Guide to Physical Examination and History Taking (11th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hiladelphia, pp. 929-930, 2013.

이 금 재(Lee, Keum Jae)



- 198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 석사)
- 2001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간호학 박사)
- 1995년 3월 ~ 현재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생명윤리, 노인간호
- E-Mail : leekj4435@gachon.ac.kr

이 창 금(Lee, Grace Changkeum)



- 2012년 12월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SN)
- 2014년 11월 : MidAmerica Nazarene University (MSN)
- 2015년 현재 : 공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다문화간호
- E-Mail : gchangkeumlee@gmail.com

박 연 숙(Park, Yeon Suk)



- 1988년 2월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간호교육 석사)
- 1999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간호학 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만성질환자간호
- E-Mail : yspark@kongju.ac.kr

이 혜 경(Lee, Hye Kyung)



- 2006년 2월 : 공주대학교 대학원(간호학 석사)
- 2012년 2월 : 공주대학교 대학원(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건강증진, 대체요법

· E-Mail : hklee@kongju.ac.kr